

여수낭만버스 탑승률 '100%' 행진

4월 27일부터 매주 금·토 운행...9회까지 370여명 탑승

뮤지컬 공연·밴드 추가 합류·SNS 후기 이벤트 등 변화

시티투어와 뮤지컬, 버스킹을 한번에 즐길 수 있는 '여수낭만버스' 시간을 달리는 버스가 탑승률 100%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 첫 운행을 시작한 시간을 달리는 버스는 9회차인 5월 26일까지 370여명이 탑승했다.

시간을 달리는 버스는 운행 첫해인 지난해 평균탑승률 88% 탑승 인원 1535명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도 5월 말까지 탑승률 100%를 기록하며 인기를 증명하고 있다.

시간을 달리는 버스의 인기 요인은 공연과 시티투어가 접목된 특별한 관광상품이라는 점이다. 여수 밤바다와 야경 등 여수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공연과 다양한 이벤트를 즐길 수 있는 점이 관광객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해 운행 경험을 토대로



올해부터 몇 가지 변화를 시도했다. 먼저 공연 장르를 지난해 연극에서 뮤지컬로 바꿔 더욱 생생한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공연 주제는 세 요정이 낭만버스에서 벌이는 사랑 이야기다.

또 올해부터 트럼펫 연주가 가능 한 밴드가 신규 합류하며 탑승객에게 더욱 풍성한 연주를 들려주고 있다.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사랑의 세레나데, 낭만여행 보내기 등 이벤트에 더해 SNS 탑승후기 작성 이벤트도 신규로 실시된다.

시간을 달리는 버스를 탑승한 소감을 개인 SNS와 블로그 등에 올린 후 주소(URL)를 여수관광문화 홈페이지(http://tour.yeosu.go.kr/)에 올리면 선정을 통해 상품을 받을 수 있다.

시간을 달리는 버스는 10월 27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운행한다. 이순신광장을 출발해 소호동 등대리, 여문문화의거리, 돌산대교, 거북산대교, 종포해양공원 등을 거치는 2시간 코스다.

탑승예약은 시 홈페이지 OK통합 예약포털(http://ok.yeosu.go.kr/)에서 가능하다. 요금은 성인 2만원, 경로·장애인·군인·학생 1만5000원, 미취학아동 1만원이다. 여수시민은 이용요금의 50%를 할인받는다.

시 관계자는 "여수의 아름다운 야경을 배경으로 뮤지컬과 버스킹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달리는 버스가 탑승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새 콘텐츠를 개발하고 탑승객 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장흥군 대덕읍 "영농현장 속으로"

이달 말까지 어려움 겪는 농가 일손돕기 창구 운영

장흥군 대덕읍(읍장 이재천)이 양파와 봉감자 수확작업이 한창인 영농현장을 방문해 농업인의 어려움을 듣는 등 적극적인 소통 행정에 나섰다.

이번 영농현장 방문은 예년에 비해 고르지 못한 불철 날씨로 인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주민 건의사항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실제로 올리는 불철 방해피해와 잦은 강우로 생산량 감소와 병충해 발생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덕읍은 6월 말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촌 일손돕기 창구를 운영해 농가의 시름을 더는 데 힘을 보탬 계획이다.

이재천 대덕읍장은 "이번 영농현장 방문은 농가의 어려움이 많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주민 건의사항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말했다.

장흥=김홍필 기자

완도군, 가고 싶은 섬 여서도가꾸기 본격 착수

5개년 기본 계획 수립...특색있는 섬으로



전라남도 브랜드 시책인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완도군 청산면 여서도가 5개년 계획으로 본격적인 착수에 들어간다.

완도군은 지난 30일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

여서도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40억원이 투입되며 주민소득 확충 지원과 복지향상, 경관개선, 브랜드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여서도만의 특색있는 아담하고 정겨운 돌담길 경관개선과 주택 재색작업으로 마을 내 환경을 가꾸어 나가고 깨끗한 바다자원을

활용 스킨스쿠버 체험 등 해양레저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한, 기존의 마을회관 리모델링 및 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여 주민들이 다함께 모여 수시로 대화를 나누고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지역공동체 형성의 장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

한편의 여서도 이장과 주민들은 주민소득사업으로 거주 주택을 활용한 민박사업과 마을특산물 판매 및 보관시설, 마을식당 건립도 건 의하고 있다.

용역보고회를 주재한 박현식 완도군수 권한대행은 "여서도는 방문하기는 조금 힘들어도 마을 내 돌담길과 해안경관자원이 매우 아름다운 곳이다"면서 "앞으로 행정과 주민이 하나가 되어 전국에서 제일 가고싶은 섬으로 가꾸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여서도는 가뭄대책용 지하수 관정사업과 닥터헬기 착륙장 설치, 섬 둘레길 개설, 포장 패키지 개발, 스토리텔링 가이드북 제작 등의 사업도 실시하게 된다.

완도=김광수 기자

무안군 불무공원·중앙공원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개시

무안군은 군민의 헌터와 소통의 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무안불무공원과 남악 중앙공원에 파이브지(5G)급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고 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공원을 찾는 모바일 기기 이용자는 Public WiFi Free 라는 무선와이파이를 연결하면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군은 인터넷시대에 정보화 소외계층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군민들의 인터넷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관광지와 주요공원에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모바일 궁정 구현과 관광객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주요 관광지와 9개 읍면 소재지에도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하는 등 군민이 언제 어디서든 양질의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관광서를 찾는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하여 보건소, 9개 읍면 민원실, 보건지소와 공용터미널(무안 청계) 등 20개소에 미래창조과학부, 이동통신사, 지자체(광역, 기초)가 매칭펀드 방식으로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안=이기성 기자

진도군, 3억1,000만원 투입해 벼 병해충 사전방제 약제 지원

진도군이 3억1,000만원을 투입, 벼 병해충 방제 약제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군은 벼 돌발병해충 방제 약제 지원에 국비 3,900만원, 군비 2억7,100만원 등 총 3억1,000만원을 농민들에게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총 2,838명으로 2018년 벼 재배 농가가 대상이며, 총 5,181ha에 해당하는 면적의 약제를 지원한다.

지난 3월 학습단체장, 지역농협 관계자, 읍면 농업인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한 2018년 벼 병해충 방제 협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벼 돌발병해충 방제 약제 지원 심의를 결정했다.

군은 지난 5월 1일부터 각 읍·

면을 통해 방제 약제 쿠폰을 배부하고 있다.

농업인들은 배부받은 쿠폰으로 진도군 관내 농약판매업소에서 벼 이앙 상지처리제로 등록된 약제를 자유롭게 구입이 가능하고, 친환경 농가는 친환경농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품질인증 친환경 자재를 구입하면 된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벼 돌발 병해충 사전 방제 약제는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줄무늬잎마름병, 도열병, 벼물벼룩, 갈파리류 등 저온성 해충을 발생 전에 방제 할 수 있어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도=조성용 기자

지역공감 마케팅조직 전문기업

湖南新聞

전안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